

“서울대만 특혜주는 법인화는 곤란”

전남대 등 지방 국립대 “재정 악화·학생수 감소” 우려

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지방 국립대들은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인 서울 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인사와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여주도록 하는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 국립대는 법인화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학비부담에 이은 학생 수 감소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국립대의

위상과 역할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국립대는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인화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과연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세종시 제2캠퍼스 설립 등 세종시 빅딜을 전제로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특혜를 겪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남대 서순필 기획처장은 “서울대에만 특혜를 주는 형태의 법인화는 안된다”며 “특히 정부재산 무상 양도와 같은 조건은 법인화와 상관없이 전국 국립대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재산, 발전기금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정부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졌지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와 일정 부분 수의사업도 가능함에 따라 학교 간 린부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순천대 박철우 기획처장은 “서울대처럼 수조원에 달한 재산, 이를 갚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대다수 지방 대학은 적은 재산과 학생 수 부족 등 자생력이 없어 자칫 자립해야 하는 사립대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연합뉴스

당뇨·아토피 치료 효과 기능성 쌀 3종 개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항산화 성분과 풍부하게 함유돼 당뇨와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높은 쌀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방송통신대 농화과 유키수 교수의 연구팀은 항산화 효과가 큰 ‘C3G(Cyanidin-3-Glucoside)’의 함량이 높은 슈퍼자마(紫米)·대립(大粒)자마·큰눈자마 등 3종의 쌀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자연집단에서 육종

하려는 목표 형질을 만들 수 없을 때 교배를 통해 새로운 유전자형을 만드는 ‘교배유종법’을 이용해 새 품종을 길러냈다.

특히 슈퍼자마는 섭취 후 혈당 지수(포도당 100% 기준)가 43.7%로 백미(53.5%)와 흑미(55.4%)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혈당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320명 파병

정부는 8일 아프가니스탄에 320여 명 내외의 병력을 파병해 국회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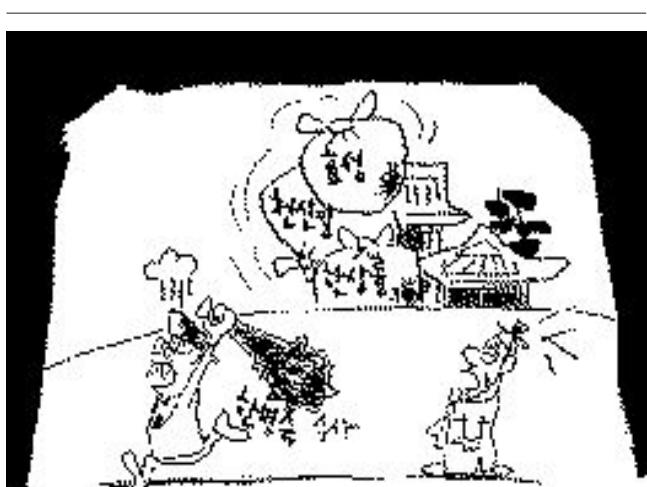
정부는 이번 주에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병력은 치안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아프간 파르완 주에 주둔하게 된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萬事(?)를 제쳐두고...

“안원구 前국장 현금도 4억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쟁진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 등)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건설 등 5개업체는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 데 대한 대가로 안 국장의 부인 흥해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그림과 사진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흥씨가 5개업체에 판매한 미술품이나 체결한 계

약의 규모는 총 36억원에 달했으며 이 덕분에 흥씨가 11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10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서모씨에게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 부심사청구를 하라고 조언한 후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 제3자 명의로 송금받았다가 특가변증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한점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2009-31단301 상속한점승인
사 및 지 김홍식(61.028-1668814)
최후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봉기도리 104
등록주소 전남 진도군 조도면 봉기도리 489
위 향길 흥식의 삼속에 대하여 상속으로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해제으로 민법
제 1032조(재권자에 대한 공고·회고)의 규정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 신고기한(공
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기 또는 수증을 신
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의함.
2009년 12월 09일
· 공 고 인 : 조예신, 김대성, 김미영
· 한정승인수리일 : 2009년 12월 02일
· 공고기간 : 2009.12.09 ~ 2010.02.08
· 신고 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봉기도리 104
김대성(010-4223-0128)

그 명성, 그대로, 땀과 열정과 합격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2010년 시험 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

9급 공무원 강좌

- 2010년 공무원 정원 4,600여명 증원,
-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 2013년까지 소방직 8000여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동고시학원’입니다”

【정규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세무직	법무직/검찰직
출판직/관세직	교정직/소방직
9급교육행정직	복지직/기술직

2010년도비공개 설명회 :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원 201강당

당일 공개설명회 참석 후 등록시 공통과목 교재 무료제공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 각 복별 8주 완성
- 야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동고시학원

www.mdgosi.co.kr

위치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4560

2009년 12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출금액

- 최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대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6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시장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최대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화 상담 010-7167-3838



바다위를 시속 150km로 난다

8일 선박법과 선박직원
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말부터 시속 150km 이상의 초고속 선박(위그선)도 바다 위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시엔에스에이엠티에서 개발한 위그선 아론세븐 1호기(위)

/연합뉴스

‘광주시민 날’을

5·18 주간으로

시의회 17일 토론회

광주시민의 날을 현재의 11월1일에서 5·18 주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의 날은 광주의 상징인 5·18민중항쟁 기념 주간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7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한호 광주대 교수와 사회를 보고 체일병 광주발전연구원장이 기조발제를 할 방침이다.

또 나간채 전남대 교수, 오수열 조선대 교수, 노희용 광주 문화수도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전·식료품값 줄인상에 공공요금마저 들썩

내년 물가 불안 재연되나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가전제품과 식료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특히 지난 2007년 이후 거의 동결되면서 공공요금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수개월째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상당수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7년 이후 시내버스, 지하철, 상수도요금 등을 동결하고 있으나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압박으로 인해 벌여 여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휘발유 값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상승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휘발유 값은 지난해 12월 7일 각각 1천 342.12원, 1천 295.50원에서 올해 같은 날 1천 643.74원, 1천 642.02원으로 각각 올랐다. 1천 300원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2.4% 가운데 휘발유 값의 기여도는 0.29%p로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 초 배럴당 4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던 원유 도입단가는 지난 10월 9.6달러를 거쳐 11월에는 74.2달러로 연중 최고치로 높아졌다.

이 같은 유가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제선 항공요금의 유류 할증료가 내년부터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교통기관들의 요금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은 유가 상승에 따라 내년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짠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 시

계 약

물물교환도 환영

다산공인증개사

전 010-7154-6996 ☎ 072-8004

▶빌딩임대